

전북특별자치도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공·민·생·공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원동 344-2) 현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원 2길 6번지

2018년 2월 6일 화요일 (음 12월 21일) 제1984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도민과 함께하는 안전대진단 돼야”

도, 국가안전대진단 돌입

송하진 도지사, 진단 첫날
 무주 안성문화터미널 등 방문
 전문가들과 점검 직접 참여

전북도는 송하진 도지사의 시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을 시작으로 54일간의 국가안전대진단 대진단에 돌입했다.

송 지사는 국가안전대진단이 시작되는 5일 무주군 안성문화터미널과 인근 전통시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에서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안전점검에 직접 참여했다.

이날 송지사는 소방·건축·전기·가스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주민들에게도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이 달린 안전점검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장행정에 앞서 지난 2일 도내 시장군수를 대상으로 한 영상회의에서 국가안전대진단이 그동안의 안전소홀 관행을 철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각 시군에서 각별히 관심을 두고 추진해줄 것을 전했다.

또한 도청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확대 간부회의를 열고 ‘국가안전대진단’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실·국·과장들이 적극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 송하진 도지사는 점검실명제와 진단결과 공개 등의 달라진 국가안전대진단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고 실·국별 소관시설에 대한 철



전북도 양궁장 시설 점검

5일 송하진 도지사는 올해 10월에 열리는 제99회 전국체전 대회 기간 중 양궁 주경기장인 임실 전북도 양궁장을 방문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심민 임실군수, 문영두 임실군의회장 및 현장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전용경기장 시설이 미흡해 아쉬웠지만, 지난 12월 국제대회 규격을 갖춘 주경기장이 건립된 것을 기점으로 양궁의 메카로서 다시한번 전북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다짐했다. 사진은 양궁장 시설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저한 안전점검 실시와 즉각적인 조치를 주문, 실·국·과장의 주회 이상 현장행정 실시도 지시했다.

아울러 지난 밀양 화재 사례를 들면서 이용자의 안전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법·제도 개선을 통해서라

도 도민의 안전이 확보 될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들이 소관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안전진단에 임해줄 것을 지시했다.

도 이현용 도민안전실장은 “국가안전대진단이 법적인 강제조치가 없어

그동안 도민들의 참여도가 낮았지만, 미리 예방하지 않으면 재난으로부터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도민과 함께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군산 선유도 망주봉 일원 국가지정문화재 되다

문화재청, 내달 6일까지 심의 지정키로
 선유도 대표하늘제1경관으로 알려져

‘군산 선유도 망주봉 일원’이 낙조 경관 조망 지점으로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예고되었다.

문화재청은 ‘군산 선유도 망주봉 일원’을 대상으로 5일부터 3월 6일(30일간)까지 지정 예고 기간 중에 수렴된 이해관계자와 각계의 의견을 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문화재로 지정할 예정이다.

선유도낙조는 서해의 낙조기관(落照奇觀) 중 으뜸으로 저명한 경관을 형성하며 낙조 조망지점이 다분화되어 있고, 선유도낙조를 중심으로 한 팔

경계의 상호작용 등 명승적 가치가 높다. 망주봉은 선유도를 대표하는 제1경관이자 지리적 지표를 알리는 랜드마크로 선유도 최고의 조망점이다.

또한 백악기 유문각력암으로 구성되어 있어 화산작용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나무 군락이 이색적이고 기이한 생태적 경관을 연출해 산정 전망대의 특성상 사방이 트인 도서, 해안경관을 볼 수 있는 곳이다.

고려에 왔던 송나라 사신 서경이 편찬한 ‘선화봉사 고려도경’에 따르면 이곳에는 송산행궁(군산 선유도 고려유적, 전라북도 기념물 제135호), 군산정, 자복사, 오통묘(군산시 향토문화유산 제19호), 객관 등 고려유적이 있었던 곳으로 역사적 보존 가치가 높은 곳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社 告
참신한 인재를 찾습니다

전북 언론의 미래를 열고자 하는 전주매일신문사가 열정과 패기가 넘치는 참신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구 분	모집분야	자 격 조 건
경력기자 0명 신입기자 0명	취재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남·여·나이제한 없음

- ▲ 접수기간 2018년 2월 28일까지
- ▲ 제출서류 이력서 1통, 자기소개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 ▲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 접 수 처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서노송동) 문의 063-288-9700(본사 총무팀)

전주매일

“전북도 저상버스 도입 운영 형식적 차원에서만 진행”

도의회 한완수 의원, 건국국 업무보고서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한완수 위원장(임실)이 5일 열린 건설교통국 2018년 업무보고에서 저상버스 도입 계획의 부실성을 질타했다.

한 위원장은 “2017년도에도 당초 17대를 구입하겠다고 해놓고 국비 미확보 등 예산상의 이유로 단 9대만 구입, 올해도 9대만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저상버스 도입운영을 형식적인 차원에서만 진행하겠다는 의미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전라북도 14개 시군중 전주, 군산, 익산만 저상버스가 일부 있고, 김제, 정읍, 남원을 포함한 나머지 11개 시군은 저상버스가 단 한 대도 없는 실정에서 도가 저상버스 도입에 이토록 소극적 행정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도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8%에 육박하고, 특히 전주, 군산, 익산, 완주를 제외한 10개 시군은 노인인구비율이 20% 이상이고, 30%를 넘는 지자체도 있는데 정작 저상버스가 필요한 곳에 저상버스가 단 한 대도 없고 도입계획도

불분명한 상태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인인구가 많은 도농복합도시 및 농어촌지역의 경우 저상버스를 도입할 경우 어르신들의 이동편의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나 해당 시군에서는 차량구입비와 운영비 등 예산부족의 이유로 저상버스 도입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한 위원장은 “올 해 추경을 세워라도 저상버스 도입대수를 대폭 늘려 저상버스가 없는 시군에 단 한 대라도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도민들의 불편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것”이라며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도 건설교통국장은 “제3차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라 2021년까지 도내 시내버스의 32%를 저상버스로 도입할 계획에 있으며, 전주, 군산, 익산 이외에 11개 시군은 기존 시내버스보다 작은 중형저상버스를 도입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도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이재용, 향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 관련기사 4면

하나된 열정 하나된 대한민국

2월 9일은 대한민국이 하나 되는 날!
 세계에 대한민국의 힘을 보여주세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2월 9일부터 25일까지 열립니다
 오랫동안 준비해온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힘을 보여주세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차량2부제 의무시행
 기간 : 2018.2.10~2.25(16일간)
 *날씨가 추우니 개인방한 준비를 꼼꼼히 해 주세요!

올림픽 특별 콜센터 1330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입장권 검색